

사회

광주 동아병원 앞·여수 중앙하이츠 사거리 '꼬리물기' 가장 심하다

경찰, 1주일간 광주 465건·전남 902건 적발

경찰이 교차로 정체를 유발하는 이른바 '꼬리물기'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 결과 광주·전남은 각각 남구 동아병원 사거리와 여수 중앙하이츠사거리에서 가장 많은 위반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광주지방경찰청과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1주일간(1~7일) '꼬리물기'에 대한 집중단속 결과 광주·전남에서 총 1천367건이 적발됐다.

광주는 총 465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가운데 동아병원 앞 사거리에서 91건이 적발됐다. 구별로는 동아병원과 백운고가 등이 포함된 남구의 적발건수가 135건으로 가장 많았고, ▲

북구 110건 ▲광산구 86건 ▲서구 78건 ▲동구 56건 등이었다.

광주는 또 이번 단속에서 처음으로 입법 캠퍼드 촬영 적발건수가 133건으로 전체 위반건수의 28.6%를 차지했다.

전남은 총 902건이 적발됐으며, 여수 192건(중앙하이츠 사거리 등), 순천 158건(조곡사거리 등), 목포 141건(항만청사거리), 광양 117건(우시장사거리 등), 나주 98건(남평오거리) 등으로 적발건수가 많았다. 위반행위에 대한 캠퍼드 촬영건수는 여수 중앙하이츠 사거리에서만 5건이 적발됐다.

같은 기간 전국 시·도에서는 모두

6천341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1천230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천133건, 경남 639건, 부산 632건, 대전 471건, 인천 417건 등의 순이다.

경찰은 이 가운데 현장에서 적발된 5천390건은 곧바로 범칙금을 부과했고, 캠퍼드를 활용한 동영상 단속에 걸린 951건은 운전자를 확인해 범칙금 통지서를 보낼 예정이다.

'꼬리물기'는 도로교통법상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에 해당해 승차차 5만원, 승용차 4만원, 이륜차 3만원 등 범칙금이 부과된다.

한편 경찰은 이번 단속 기간 동안에 전국 상습정체 교차로 396곳에서 하루 평균 경찰 2천700여명을 동원해 단속을 벌였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교사 성과급 차등 지급 개인별 최대 137만원

내년부터 전국 초·중·고교의 학교별 평가 실적에 따라 성과급이 차등 지급되고 교사의 성과급 차등 지급률은 지난해 30~50%에서 올해 50~70%로 확대돼 개인별 성과급 차이가 최대 137만원으로 벌어진다.

교육과학기술부는 8일 기존의 교원 성과급이 개인별 실적에 따라 지급됐던 것을 학교 간 경쟁을 촉진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내년부터는 개인별 성과급에 학교별 집단 성과급을 추가해 지급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성과급 총액의 100%를 개인 단위만 지급했으나 내년부터 90%는 개인 단위로, 나머지 10%는 학교 단위로 평가해 주겠다는 것이다.

단순히 학업성적이 높은 학교에 성과급을 많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학업성취도 평가 향상도, 학교·교장 평가 결과, 공개수업·자율장학 실적, 학생·학부모 만족도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할 계획이다.

학교 평가를 할 때에는 시도별로 같은 학교급끼리 각각 3개군으로 묶어 군 내에서 A, B, C 등급을 매기도록 했다. 등급별 비율은 A등급이 30%, B등급 40%, C등급 30%이다.

성과급 액수는 등급별 1인당 지급액(A등급 33만3천270원, B등급 22만2천180원, C등급 11만1천900원)에 학교별 교사수를 곱해 계산한다. 각 학교가 받은 집단 성과급을 학교 내에서 어떻게 배분할지는 학교장이 알아서 정하도록 했다.

교과부는 시도별로 구체적인 평가 기준, 학교군 배정 방식 등을 상반기 내에 확정하도록 하고 연말까지 학교 평가를 마쳐 내년 3~4월 개인별 성과급과 집단 성과급이 동시 지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오늘 날씨 해돋이 07시 25분 해질 18시 08분 달돋이 04시 02분 달짐 13시 43분

빗방울 '특특'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흐리고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다.

지역	차차	최저	최고
광주	7/12°C	7/10°C	7/10°C
목포	7/10°C	6/10°C	6/10°C
여수	5/9°C	4/11°C	4/11°C
구례	4/11°C	4/10°C	4/10°C
애남	4/10°C	4/10°C	4/10°C
장흥	5/11°C	4/10°C	4/10°C
고흥	5/11°C	4/10°C	4/10°C
순천	5/11°C	4/10°C	4/10°C
영광	5/10°C	4/10°C	4/10°C
진도	5/10°C	4/10°C	4/10°C
전주	5/9°C	4/10°C	4/10°C
남원	2/8°C	2/8°C	2/8°C
옥산도	6/9°C	6/9°C	6/9°C

〈오전〉 바다
서해 남부 앞바다 면바다 북~북동동 0.5~1.0m 0.5~1.5m
남해 서부 앞바다 면바다 북~북동동 0.5~1.5m 1.0~1.5m

〈오후〉 바다
서해 남부 앞바다 면바다 북~북동동 0.5~1.5m 1.0~2.0m
남해 서부 앞바다 면바다 동~남동동 0.5~1.5m 1.0~2.0m

◇주간날씨
날짜 10(수) 11(목) 12(금) 13(토) 14(일) 15(월)
날씨 [날씨 아이콘]
최저/최고 7/11 5/8 2/6 0/6 -1/7 0/8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연세대 절대평가 폐지

"학점 인플레이 막고 경쟁 강화" ...대학 파장 클 듯

연세대가 올해부터 경쟁 기반의 평가를 확대하고자 영어 원강을 제외한 모든 수업에서 절대평가를 폐지한다.

서울대 등 주요 대학 대다수가 여전히 전공이나 교생실습 등 적지 않은 교과에서 절대평가를 인정하는 것과 비교하면 대학가에서는 이례적인 조처여서 파장이 예상된다.

연세대는 고득점자 정원을 교수 재량으로 정할 수 있었던 4학년 심화전공(4천 단위 과목)과 관련해 '성적평가 질서를 교란한다는 지적이 많았

다'며 올해 1학기부터 상대평가를 적용한다고 8일 밝혔다.

또 절대평가가 허용됐던 교직 이수 과목과 음대 실기, 현장실습, 이공계 실험 수업 등도 A 학점(A+, A0, A-)을 평가 인원의 최대 50%로 제한키로 했다. 절대평가는 '회계원리 원강' 등 영어로 가르치는 단과대 전공에서만 예외적으로 인정된다고 학교 측은 전했다.

고려대와 서강대, 이화여대 등은 현재 교직과목이나 20인 이하 강의,

현장실습과 같은 사례에서 절대평가를 허용하고 있다.

연세대가 '학점 인플레이'를 막고 경쟁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절대평가를 폐지기로 하자 대학가 일각에서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취업의 주요 '스펙(요건)'인 학점을 두고 벌어지는 경쟁을 과도하게 부추겨 학생들의 동리 의식과 창의력을 억누를 수 있다는 것이다.

연세대 문화인류학과에 출강하는 우석훈 박사(2·1연구소 소장)는 "탐작업에서도 순위 경쟁이 벌어지고 독창적인 접근을 떠올릴 겨를이 없는 경우가 흔하다"며 "교수에게 평가 재량권을 주는 방법이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지리산 17개 탐방로 출입통제

16일부터 4월 말까지 백무동~천왕봉 등 개방

지리산국립공원 북부사무소(소장 정용상)는 산불 발생 위험이 큰 봄철 건조기를 맞아 오는 16일부터 4월 말까지 지리산 17개 탐방로에 출입을 통제한다고 8일 밝혔다.

통제 구간은 종주 능선 구간인 노고단~장터목(23.8km), 백사골공원지킴터~삼도봉~반야봉(1.5km), 대성리~세석평전(8.8km), 청학동~삼신봉~갈림길(7.7km), 만복대~삼삼재(5.3km), 만복대~정령

치(2km) 구간 등 17개 구간 109.5km이다.

그러나 장터목~천왕봉(1.7km) 구간과 종산리~칼바위~법계사~천왕봉(5.4km), 백무동 하동바위~장터목(5.8km), 정령치~팔랑치~바래봉~운봉(11.8km), 반선~오룡대~백사골공원 지킴터(9km) 구간 등 20개 구간 92km는 개방된다.

지리산 북부사무소 관계자는 "출입통제구간에 무단으로 들어가거나 인화물질 소지 또는 흡연, 불법취사 행위 등을 하다 적발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연합뉴스

11일까지 비 온 뒤 '반짝추위'

강우량 5~10mm

9일 광주·전남은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다. 11일까지 이어지는 비가 그친 뒤 반짝 추위가 예상된다.

광주지방기상청은 "9일 광주·전남은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흐리고 오후부터 비가 내릴 것"이라고 8일 예보했다.

예상 강우량은 5~10mm.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4~7도로 전날보다 다소 높겠고, 낮 최고기온은 9~12도로 전날과 비슷하겠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와 남해 서부 전 해상에서 0.5~2.0m로 일겠다. 기상청은 해상에 따라 짙은 안개가 끼는 곳도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기상청은 비가 그치는 11일부터 최저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질 것을 내다봤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신양파크호텔
2010. 2. 1. **스테이크하우스오픈**
*점심: 12:00~14:00 *야식: 18:00~02:00 AM
*주말: 10:00~02:00 AM
*스테이크하우스 오픈 기념 특별 이벤트 (불사귀장) 2010년 2월 9일부터 2월 15일까지 *상업은행 1층 ☎ 228-8000

리모델링으로 새롭게 태어난 신양파크호텔 워딩홀
공객실과 무어한 세팅, 최상의 음식, 최고의 서비스! 특급호텔의 맛과 고급이유인은 물론식을 제공합니다.
☎ 228-8000

조이 여행사
☎ 234-3222

제주 여행 패키지
108,000~

일본 문화체험
379,000w

419,000~499,000w

549,000w

무안에서 머는대만 단독 전세기(합석)
799,000w ~

749,000w ~

무안에서 장사 적향편
749,000w ~

699,000w ~